

무주로 사과꽃놀이 가요

20일부터 이틀간 무풍면 사과단지서 사과꽃따기 행사

사과 꽃 만발한 무주가 장관이다. 반딧불사과의 고장 무주는 20일~ 21일 양 일 간 무풍면 사과단지에서 사과꽃따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과나무를 분양받았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꽃따기 외에 사과단지를 배경으로 한 사진콘테스트, 배경된 나무에 이름표 달기 향긋 사과 짹 짹은 달콤 와플 만들기 와 클레이를 이용한 사과 장신구 만들기 등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읍에 사는 김 모 씨(50세)는 “타지에 사는 형제들이랑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나무를 분양 받았었다”며 “꽃도 피고 날도 좋으니 동생들이랑 조카들 오라고 해서 모처럼 좋은 시간 보내야겠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무풍면 사과단지는 해발 500M 산간에 위치해 사과재배 적지로 꼽히는 곳이다. 전체 농경지의 80% 이상이 사과밭이어서 봄이면 사과 꽃이 만발해 일대가 장관을 이룬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소독작목 팀장은 “사과꽃 따기는 체험객들에게 꽃놀이의 재미를 선사하며 고품질 무주사과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홈페이지(<http://tour.muju.go.kr/apple>)를 통해 반딧불사과 나무를 주당 10만 원씩에 분양받을 수 있다”며 “9월 상순(홍로)과 10월 하순(후지)에는 사과나무 분양객들을 대상으로 사과수확 체험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9회 진안읍민의장 수상자 확정

문화체육장 백현숙, 산업근로장 남상일 씨 등 4명

진안군 진안읍(읍장 박홍영)은 지난 17일 제19회 진안 읍민의장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

진안읍은 읍민의장 선정심의회를 열고 문화체육장 백현숙(47), 산업근로장 남상일(57), 애환장 하광호(63), 효열장 엄재청(59)씨를 각각 올해 수상자로 확정했다.

문화체육장 백현숙씨는 음악봉사단체인 느티나무양상블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지역 각종 축제장과 관광지 등을 방문하여 음악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한국음악협회 진안지부 사무국장 및 진안군 마이싱어즈 합창단 반주자, 진안군 어린이합창단 반주자, 진안군 장애인 대상 우쿨렐레 음악지도 등 각종 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진안군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산업근로장에 선정된 남상일씨는 초원농장을 운영하면 양돈농가로써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품질향상에 노력한 결과 진안군 축산물 '깜도야' 브랜드 개발에 기여하는 등 청정진안 축산물 발전에 공헌 하였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 임원 및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지역농

지역 매 아리

장수군의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위촉

장수군의회(의장 김종문)는 18일 김용문 의원 외 4명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군의회는 지난 1월 28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문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민간위원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겸한 4명(김종철, 백사인, 이종성, 정영모 위원)을 선임하여 총 5명의 위원을 집행부에 통보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20일 동안 2018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김종문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나가고 성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30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안·군정질문 등 처리

장수군의회(의장 김종문)는 4월 17일 1일간 제30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종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는 23일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현장실사를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장수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을 당부하였으며, 유기홍 행정부지위원은 심사보고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의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과, 장정복 산업건설위

원장이 심사보고한 「장수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을 의결했다.

또한, 한국의 부의장은 군정질문을 통해 “양파 주산단지 지정 등 지원 확대와 산사 매립장 폐기물 이송에 따른 소각장 증설”을 요구했다.

한국의 부의장은 “2018년 기준 장수군 전체 양파 재배면적은 77.3ha이며 이중 산사면 재배면적은 119농가로 60.5ha로 군 전체의 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간 3,660톤을 생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양파 생산량이 늘고 있지만 현재 장수군에는 자체 브랜드 없이 출하를 전남 풍탄농협

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0년 10월에 사용종료된 산사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하여 지적했다.

한국의 부의장은 “장수군만으로는 주산단지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입산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함께 주산단지로 지정받는 방법과 양파의 경우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로 양파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출하물량 및 시기를 조절할 것”과 “산사매립장 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각장을 증설하여 장수군 전역의 쓰레기 처리는 물론 산사매립장의 기존 폐기물 이송도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감자 보급종의 안정적인 생산과 우량무병 씨감자 생산을 위해 생육기별 공동방제에 나서고 있다.

무주군, 우량무병 씨감자 생산 전념

무주군이 감자 보급종(품종 수미)의 안정적인 생산과 우량무병 씨감자 생산을 위해 채종단계에 공동방제약제를 지원하고 생육기별 공동방제에 나서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채종포 공동방제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유묘가 15cm정도 발육되었을 때 1회, 개화시기에 1회(연2회) 국립종자원과 합동으로 포장검사를 실시해 이 품종 혼입여부를 비롯한 바이러스 및 기타 병해 등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포장 검사 후 수확된 감자(병해와 동해, 기계적 상해, 기형감자, 열개감자, 중심공동 및 감자썩 등이 규격에 합격한 물량은 중량이 50~240g 사이에 있는 것만 선별해 전라북도 시·군 농업들과 연계, 신청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진안읍, 용담면 주민설명회

진안군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진안읍 군상1지구(군민자치센터)·원단양지구(원단양마을회관), 용담면 회룡지구(회룡마을회관)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합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진안군은 총 11개 지구 5,300여 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마친 거나진행 중에 있다. 올해에는 국비 2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3개 지구 1,27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진 설명회로 지금까지 사업추진 과정과 측량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군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구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원거리 사

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을회관 내 현장사무실을 마련, 주민 결에서 항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요일을 지정해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3~4)으로 연락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